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전기공학과	이름	문 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포틀랜드
파견대학	Portland State University	파견기간	2019.09~2020.03
귀국여부	귀국하였습니다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미국 북서부 포틀랜드, 근처에 관광명소가 있어 사람들도 적당히 있고 식료품점이 학교 근처에 많습니다.</p> <p>도시 건물과 대학교 건물이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규모는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하고 자연과 도심이 잘 어우러져 있어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p> <p>또한 학교근처 대중교통이 정말 잘 되어있기 때문에 교통 걱정이 많은 교환학생들에게 좋은 대학교입니다.</p>
2019-2 학기 수업	<p>Signals And Systems (전공과목)</p> <p>전기공학과 전공과목으로써 우리학교의 제어공학과 비슷한 내용의 과목입니다. 수업방법으로는 강당 비슷한 교실 안에서 교수님께 자유롭게 질문을 하지만 보통 교수님이 칠판에 써주신 내용을 메모하고 듣는 한국과 비슷한 수업방법입니다. 과제는 일주일에 한번씩 학교 포털을 통해서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이 수업의 평으로써는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고 시험문제도 어렵게 나오는 편이라 추천하진 않습니다.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시험성적을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p> <p>Electronics (전공과목)</p> <p>전기공학과 전공과목으로써 우리학교의 전자회로와 비슷한 내용의 과목입니다. 수업방법으로는 강당 비슷한 교실 안에서 교수님께 자유롭게 질문을 하며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질문과 수준에 맞게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출하는 과제는 없었으나 스스로 공부하는 용도로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학생들을 생각해주는 교수님의 마인드가 정말 좋았습니다. 꼼꼼히 교수님이 주신 과제를 공부한다면 좋은성적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학교 전기공학도 학생들이 전공과목 중 유일하게 추천하는 과목입니다.</p> <p>Introduction to Acting (교양과목)</p> <p>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교양과목입니다. 연기를 정말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흥미로운 수업입니다. 수업은 대략 20 명정도의 학생들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앉아서 진행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배우이자 감독도 하시는 분이어서 기본기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자들을 위한 과목이 아니라서 정말 진지하게 전문적이라기보단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천천히 경험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p>

	<p>다만 연기를 영어로 해야되고 느낀점 및 의사소통도 자유롭게 말을 해야되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힘들실 수 있습니다.</p> <p>과제는 각 연기 대본 분석 및 느낀점을 쓰는 것이 있고 시험은 세 종류 (혼자서 하는 연기, 파트너와 함께 하는 연기, 독백연기)가 있습니다.</p> <p>교수님께서 정말 분위기도 좋게 잘 이끌어주시고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시각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 추천합니다.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기 쉽고 제가 들었던 수업중에서 이 수업이 가장 좋았습니다.</p>
<p>2020-1 학기 수업</p>	<p>ENGR Electromagnetics (전공과목)</p> <p>전기공학과 전공과목으로써 우리학교의 자기장론과 비슷한 내용의 과목입니다. 수업방법으로는 교실 안에서 교수님께 자유롭게 질문을 하며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질문과 수준에 맞게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매주마다 쪽지시험이 있었고 성적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제출해야 되는 과제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이해도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는게 맞다는 교수님의 마인드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알려주신 것에 비해 시험의 난이도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성적을 잘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이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p> <p>Intro Computer Hardware (전공과목)</p> <p>전기공학과 전공과목으로써 우리학교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비슷한 내용의 과목입니다. 수업방법으로는 교수님께서 피피티를 보시며 설명해주십니다 한국 대학교의 수업방법과 비슷합니다. 매주마다 포털에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컴퓨터 과목이다 보니 컴공학생들과 같이 들었습니다. 범위는 넓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잘 짚어주셨고 짚어주신 내용안에서 시험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성적은 비교적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p> <p>First-year Spanish (교양과목)</p> <p>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교양과목으로써 스페인어의 가장 기초수업입니다. 수업진행은 100%로 스페인어로만 진행이 되지만 차근차근 천천히 진도를 나가주시기 때문에 복습을 해주신다면 스페인어로 기본적인 회화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회화 수업이다보니 반 친구들과 회화 연습을 많이 하며 분위기는 밝고 재밌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을 쉽게 사귀어 수 있는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과제를 평일에 두번 주말에 한번씩 제출해야됩니다. 과제가 많은 편입니다. 과제를 열심히 한다면 쉽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Portland State University 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교환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교환학생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서로서로 친해질 기회를 만들어주고 비자, 보험, 학교 프로그램등을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p> <p>매주 수요일 오후에 차를 마시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프로그램도 있고, 교환학생 담당부서가 따로 있어서 달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주최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안에는 근처 유명한 관광지를 가거나, 피자파티, 보드게임파티, 할로윈파티등등이 있습니다.</p> <p>또한 미국에서 지내면서 곤란한 일이 있을 땐 교환학생 담당교수님께 이메일을 하거나 부서에 방문하면 친절하게 해결해 주십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9 월에서 11 월까지는 산뜻한 가을 날씨로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포틀랜드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으로 유명할정도로 12 월 즉 겨울부터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올 때 비의 양이 많이 오진 않지만 꾸준히 자주 옵니다. 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시기 전에 고민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학교 근처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미국 어느곳이나 다 그렇듯이 밤에 혼자다니는 것은 위험합니다. 학교에서 걸어서 20 분정도 거리에 있는 관광지에는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녁엔 그쪽으로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p> <p>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은당은 학교에 있는 기숙사중 두번째로 싼 기숙사입니다. 보통 2 인 1 실을 사용하고 주방과 화장실은 옆방과 공유하여 총 세명에서 사용합니다. 숙소 시설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생활하기에 불편함 없고 두명에서 생활하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주방은 셋이서 사용하는데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특히 냉장고가 셋이 쓰기에 작아서 많이 보관할 순 없습니다. 남녀 방 구분은 있지만 층 구분은 없어서 남자 여자 같은 층을 사용합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0) 홈스테이()</p> <p>외부식당 (0) 직접 요리 (0) 기타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식당은 뷔페식으로 되어있고 맛은 보통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식당에서 사먹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학교 밀플랜을 하는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밀플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돈을 내어 학교식당뷔페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Portland State University 에는 근처 마트에서 기부를 받아 식료품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이지만 저는 이것을 이용하여 식비를 많이 아꼈습니다. 저는 주로 직접 많이 만들어 먹었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 근처 맛집에서 사먹었습니다.</p>
교통	<p>포틀랜드는 교통편이 좋은편입니다. 따라서 근처 놀러 가고 싶을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Portland State University 학생들은 Streetcar 라는 포틀랜드에만 있는 지상철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숙사는 학교의 모든시설과 가깝기 때문에 다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우버나 리프트를 한국의 택시처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160 만원	

Fees	학교 건물 이용비로 학기당 대략 300 불	
보험료	저는 자매대학 보험비를 냈습니다 학기당 850 불	
숙소	기숙사비 한학기 1700 불	
식비	한달에 대략 300 불	
교통비	한달에 20 불	
책값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책은 사지 않았습니다	
기타 1		
기타 2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과건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과건 전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하여 비자서류등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연계되는 서류들을 잘 정리해서 보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특히 ds-2019 는 출입국 할때 꼭 필요한 서류이니 잘 보관하고 계셔야합니다.
미국에 가기전 최대한 많이 회화연습을 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많이 알고 갈수록 더 많이 영어를 배우실 수 있을겁니다.
미국에서 알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자마자 알바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미국은 행정처리가 한국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저도 알바를 구하기 까지 대략 4 주가 걸렸습니다.
대학교에서 하는 알바는 교환학생도 합법이기 때문에 학교알바를 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알바를 구할 때는 직접 그 장소에 가서 알바를 구하는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식당에서 알바를 하였는데 만족스럽게 하였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포틀랜드 대학교는 동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꼭 한군데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동아리들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포틀랜드 대학교는 근처에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때마다 관광지의 다양하고 맛있는 식당과 카페들을 다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포틀랜드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학기 시작전 미국로드트립도 해보고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알바를 구하여 학교식당에서 케셔를 해보기도 하고 농구경기 때 휴게소에서 소세지, 나쵸 그리고 팝콘들을 팔아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웠던 경험인 미국에서 연기수업과 다양한 동아리들을 참여해보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정말 알차고 재밌는 교환학생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면서 스스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환학생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한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저에게 맞는 직업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6 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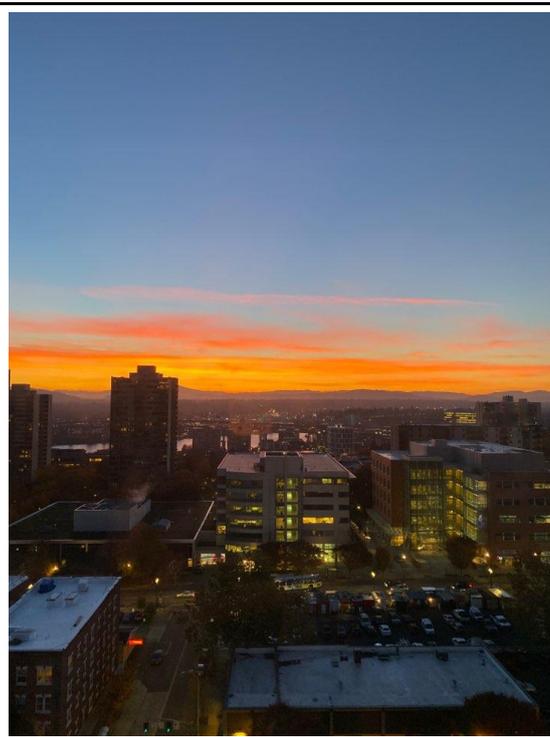
대학교의 도서관



토요일마다 대학교 공원에서 하는 파머스마켓



학교 기숙사에서 걸어서 30분정도 거리에 있는 워터프런트공원



기숙사에서 찍은 주변 풍경



여행가서 찍은 샌디에고 라호야비치 풍경



교환학생 부서에서 주최해준 트립